

## 지각과 몸: 노에의 이론을 중심으로\*

윤 보 석†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이 논문의 목적은 지각의 본성에 대한 알바 노에의 행화이론(enactive theory)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다음 세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i) 과연 몸이 마음의 형성에 아주 특별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ii) 노에가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 (iii) 노에의 이론이 외적 대상들의 지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는가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i)과 (ii)에 초점을 두고 노에의 이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다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은 결국 체화된 인지 일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들이다. 즉, 딱히 노에 이론에 국한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다. 노에 이론의 특징과 핵심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iii)에서 제기된 “지각 현존의 문제(the problem of perceptual pres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노에의 설명이 정확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지를 밝히는 것이 4장의 목적이다.

주요어 : 체화된 인지, 알바 노에, 행화이론, 지각, 현존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5).

† 교신저자: 윤보석, 이화여대 철학과, E-mail: bosuk@ewha.ac.kr

## 서론

지각에 있어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지각(perception)은 통상 세계에 대한 지식의 통로로 간주된다. 행동 또한 지식의 증대를 가져온다.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여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움직여 다님으로서 세상을 더 많이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움직여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다면 어떠한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상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지 않는가? 우리가 직접 세상을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 정보매체가 세상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움직임”은 “세상을 봄”에 차이를 가져옴으로서 간접적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전자가 후자에 본질적인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몸통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삼발이는 분명 카메라에 맺히는 상에 인과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카메라 몸통의 움직임은 카메라에 맺히는 상을 위한 준비단계 일뿐 카메라의 상 자체에 본질적인 것 같지는 않다. 카메라의 삼발이는 사진을 찍기 위한 수단이지 사진 자체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사진의 형성은 카메라의 몸통 안에서 일어나듯이 지각 활동도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사건이다.

노에의 행화이론(enactive approach)은 지각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노에의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행동의 일종이다. 지각이 우리의 내부에 일어나는 사태(happening)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지각은 문자 그대로 눈과 귀 뿐 아니라 몸 전체로 세계를 탐색하는 행동이다 (194).<sup>1)</sup> 노에의 책 제목처럼 - “action in perception” - 움직임/행동이 세상을 본다는 것을 구성하며 전자가 후자 안에 있다.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노에의 입장을 “행동하는 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에는 “감각운동지식(sensorimotor knowledge)”<sup>2)</sup>이라고 부

1) 본문에 삽입된 괄호 안의 수는 노에의 *Action in Perception*의 페이지 수입.

2) 이 논문의 한 심사자가 “sensorimotor knowledge”를 “지각행동”보다는 “감각운동”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적절한 제안이다. 지각행동지식이 지각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르는 지식이 지각의 기반이 된다고 봄으로서 행동이 지각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2) 즉, 몸에 실현된 감각운동지식이 없다면 지각 또는 지각 경험은 최소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각운동지식이란 행동이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것이다.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면 대상이 시계(visual field)의 훨씬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크게 보인다. 멀어지면 사람이 개미처럼 보인다. 또는 우리가 안구를 움직이면 시계에 드러나는 현상이 달라진다. 근시인 사람은 멀리 있는 대상을 잘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보다 선명하게 보임을 알고 있다. 이 세계 내에 구체적으로 위치해 있는 몸의 움직임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흐름이 다양해지고 복잡해 질 수 있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자극의 변화는 다시 몸동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니스공이 날아오면 나는 그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테니스공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가져온다. 테니스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과적 고리(loop)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노에의 이론의 핵심은 이러한 친숙한 신체적 지식이 심적 현상, 특히, 지각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노에의 주장은 행동이 단지 지각 경험을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은 지각과 행동의 연계에 대한 지식에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하고 후자가 전자를 부분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지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사건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하나이다. 노에 이론의 한 특징은, 다소 피상적이긴 하나, 경험이 단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개념 틀과 융합되어 있다는 칸트적 접근과 유사한 점이 있다. 노에의 경우 몸에 실현된 감각-운동 연계기술들이 개념 틀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노에의 이론은 그 자체 하나의 흥미로운 지각이론이며 또한 그의 이론은 체화된 인지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각을 이해함에 있어 행동과의 연결을 중요시 하는 것은 곧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에가 말하는 감각운동지식은 단지 머리에 있지 않다. 감각운동지식은 기술(know-how)이다. 지각은 행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각이 행동하는 노하우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탈 줄

---

말은 순환적으로 들릴 수 있다. 지각을 분석하기 위해 지각을 가정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노에가 말하는 sensorimotor knowledge에서 “sensori”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의 패턴을 의미하고 “motor”는 몸의 동작 또는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고 있다. 자전거 타는 행위는 그러한 기술의 활용이다. 자전거 타는 노하우는 단지 머리 안에 있지 않고 머리와 몸에 실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노에의 이론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노에 자신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일 지각이 부분적으로 신체적 기술의 습득과 실천에 의해 구성된다면  
- 내가 이 책에서 논증하려 하듯이 - 지각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몸에 의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개체만이 그러한 기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지각하려면 당신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5)

체화된 인지는 확장된 마음(extended mind)과 함께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즉, 마음을 몸과 세계로부터 분리하여 어떤 내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데카르트적 마음이론에 대한 한 반발이다. 물론 데카르트는 마음을 두뇌를 포함한 전체 물리적 세계로부터 분리하였으므로 두뇌중심주의가 엄밀히 말해 데카르트적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두뇌중심주의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흔히 두뇌중심주의를 데카르트적 이론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간주한다. 두뇌중심주의는 최소한 몸과 넓은 환경을 마음의 존재론적 기반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뇌중심주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자극이 수렴되고 외부로 가는 명령이 출발하는 어떤 중심 관제탑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두뇌중심주의는 경험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두뇌중심주의가 반박된다면 실제로 심적 현상의 기반이 무엇이나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 반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한 목적은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노에의 반박이 가지는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마음이 실현되는 단위는 두뇌가 아니라 몸 또는 환경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영역임을 주장하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와 확장된 마음은 협력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에의 행화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반론을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째 반론은 바로 확장된 마음 옹호자인 클락이 제시하는 반론이다 이 반론이 2장의 주제이다. 첫 번째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노예의 입장이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인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지나치게 몸의 특별한 기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두뇌중심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다룰 것이다 과연 노예의 이론이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론을 제시하는가 두뇌중심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확장된 마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이 노예의 행화이론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인과(causation)와 구성(constitution)의 구분에 기초한 확장된 마음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비판이 노예의 이론에도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블록의 비판을 검토해 볼 것이다<sup>3)</sup> 그러나 나는 클락과 블록의 비판이 노예의 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노예 이론의 가장 큰 의의와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노예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노예의 이론이 지각의 어떤 측면, 특히, 외적 대상들의 지각에 대해서는 노예의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거나 유망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두뇌중심주의의 핵심적 문제점은 두뇌와 세계의 연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두뇌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은 세계의 특정 대상들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는가 외적 대상들이 우리의 경험에 현존하는가 아니라면 외적 대상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동차와 나무 등을 그냥 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노예 이론의 핵심적인 관심사이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노예의 이론이 적절한 답을 제공한다면 노예의 이론은 상당한 성과를 획득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4장에서는 외적 대상의 지각적 현존에 관하여 노예의 이론이 과연 유효한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행동과의 연관성을 통해 지각을 분석함으로써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노예의 이론에 대하여

- (i) 과연 몸이 마음의 형성에 아주 특별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ii) 노예가 두뇌중심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 (iii) 노예의 이론이 외적 대상들의 지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는가

3) 예를 들어, Adams와 Aizawa가 “coupling-constitution fallacy”에 기반을 두고 확장된 마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2001.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답할 것이다. 노에의 이론이 가지는 핵심적 의의와 문제점은 (i)과 (ii)보다는 (iii)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몸과 환경

마음을 가지기 위해 몸이 왜 또는 어떻게 중요한가. 체화된 인지의 주장은 단지 마음이 몸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심성을 결정하는 형이상학적 기반에 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성을 인지적인 측면과 감각적/현상적 측면으로 구분할 때 체화된 인지의 주장이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체화된 인지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현상적 측면을 고려해 보자. 위가 없는 개체는 배고픔을 느낄 수 없는가? 배고픔의 특징이 배고픔이 느껴지는 특정 신체 부위에 인과적으로 의존할 수는 있다. 공복상태가 통상 배고픔을 촉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적 의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형이상학적 의존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떠한 때에 특정한 느낌을 가진다고 해서 그 특정 신체 부위가 없다면 특정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은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환상통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비록 다리가 없지만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현상적 의식이 두뇌에 수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과적 의존의 여러 사례들이 자신의 견해와 양립가능하다고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두뇌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몸이 형이상학적으로 특별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두뇌중심주의를 배격하는 클락은 인간의 몸이 인간의 마음과 의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다는 체화된 인지의 몸중심주의(body-centrism)를 비판하면서, 노에를 그 대표적인 옹호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언급한다.<sup>4)</sup> 클락이 비판하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인간 체화의 특정한 신경생체학적인 사실들이 인간의 심적 상태와 속성들의 본성과 내용에 “제거할 수 없는 (ineliminable)” 기여를 한다.

4) Andy Clark, 2008.

몸중심주의에 대한 클락의 반론은 기본적으로 심신동일론에 대한 기능주의의 비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심신동일론자들은 마음이 실현되는 한 구체적인 매체인 두뇌를 마음과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마음이 다른 매체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비록 무생물적인 매체라고 해도 적절히 조직되어 있다면 마음을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심각히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두뇌중심주의는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중시하는 체화된 인지도 다른 몸에 마음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닌가? 확장된 마음 옹호자들은 두뇌 뿐 아니라 몸의 부분들도 적절한 환경의 산물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두뇌 손상으로 인하여 기억이 상실된 치매환자가 아이패드에서 정보를 넣어두고 상시로 사용할 경우 아이패드가 그 환자의 기억과 마음을 확장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몸의 손상도 외적 도구나 장치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마음을 가짐에 있어 특별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몸의 특별한 위상을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확장된 마음과 같음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심성의 복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다. 마음을 그것이 실현된 구체적 매체의 특성으로부터 추상화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 체화된 인지는 구체적 매체의 특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체화된 인지는 자연스럽게 기능주의와 상충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적 상태의 의식적 또는 현상적 속성에 주목할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상적 의식이 통상 기능주의적 분석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체화된 인지 옹호자들이 기능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과연 체화된 인지가 그들이 부정하는 심신동일론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지 의심스럽게 된다. 그 둘은 매체독립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단지 심성과 관련한 경계가 두개골이나 아니면 피부이냐의 차이밖에 없게 된다. 노예가 이러한 선택지를 택하지는 않는다.

클락의 비판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은 로봇이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되 로봇 또한 인간의 몸과 유사한 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락은 몸의 차이는 두뇌 내의 정보처리 과정이나 혹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서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인간의 의식을 뱀과 같은 몸에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몸이 다를 경우, 다른 것을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의식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다른 것들의 조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아마 클락이 그 조정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클락 또한 실제로 조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기능이 실현되기에 충분한 조직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능주의자들 또한 실현하는 매체의 구체적 성질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체스 게임은 돌, 종이, 플라스틱 칩 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 부는 날에 연기를 가지고 체스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노에는 행화이론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정확히 같은 (exactly like)” 몸을 가져야 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대응한다.(26) 촉각-시각 교체 기구(TVSS)은 시각장애인의 머리에 장착된 카메라로 부터의 자극을 다리의 촉각 자극으로 전환해 준다 이러한 도구의 사용에 적응이 될 경우 통상 시각적으로 처리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대상이 부분적으로 다른 물체에 의해 가려져 있을 경우 그 대상의 가려진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행태는 촉각에 의한 것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촉각은 물리적 접촉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에는 이러한 경우가 충분히 시각적이라고 말한다. 눈과 시각 두뇌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각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실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은 복수실현 가능성을 반드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가 통상 “정상적인” 시각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에는 그 차이가 TVSS가 망막처럼 섬세한 자극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응한다. 따라서 TVSS는 섬세한 작업과 행동에 있어 제한이 발생시키며 이는 결국 감각 운동지식의 차이 그리고 나아가 경험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만일 TVSS가 인간의 눈처럼 섬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인간의 시각 경험도 실현될 수 있다 결국 노에는 빛과 행동의 연결 패턴에 대한 지식이 동일하다면 경험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노에의 지각이론에 따르면 몸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와 같은 지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와 정확히 동일한 몸을 가져야 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감각자극과 행동의 상응관계에 대한 지식이며 그 지식을 실현하



는 적절한 매체라면 그 매체는 반드시 인간의 몸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노에의 지각이론은 몸중심주의에 대한 클락의 기능주의적 비판을 비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5)</sup>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TVSS가 기능적으로 눈과 시각 두뇌와 동일하다고 해도 과연 그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시각 경험”을 가지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대상과의 행동 양식에 있어 우리와 동일하다고 해서 과연 동일한 경험을 가지는가? 특히 경험의 현상적 성질에 주목하는 철학자는 반발할 것이다. 만일 노에가 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물론 그러한 반발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노에는 경험의 현상적 성질까지 포함하여 경험이 몸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리하자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현상적 의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상적 의식이 기능주의에 어려움을 제기해 왔으며 따라서 현상적 의식과 관련하여 매체독립성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클락의 몸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특정한 매체로부터의 추상화를 허용한다면 이는 현상적 의식에 주목했던 애당초 동기와 상충하는 것 같다. 여기서 노에는 감각운동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각운동지식은 여전히 우리의 현상적 의식의 분석에 있어 행동과 몸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인간의 몸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능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감각운동지식이 두뇌에 표상되기 보다는 몸에 분산되어 있는 어떤 기술로 이해되는 한 여전히 몸의 중요성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 인과의 구성

두뇌중심주의에 따르면, 두뇌의 차이가 없는 마음/경험의 차이는 없다. 두뇌가 마음을 결정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두뇌가 서로 다른 경험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즉, 두뇌의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비록 몸과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경험의

5) 클락의 비판에 대한 또 다른 대응으로 Demsey & Shani 2012 참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체화된 인지의 주장에 따르면 두뇌의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은 두뇌와 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이 다를 경우 이 차이는 몸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밀리칸이나 드레츠키가 옹호하는 내용 외재주의(content externalism)에 따르면 현재 심적 상태의 표상적 내용은 과거에 의해 결정된다. 유관한 진화론적 역사가 현재 심적 상태의 표상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비록 심적 상태의 현재 속성이 동일하다고 해도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심적 상태들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으로 동일한 쌍둥이들이 다른 심적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과거의 사실이 현재 심적 상태의 형이상학적 수반 기저에 포함된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실들이 심적 내용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아니다. 만일 과거가 달랐더라면 심적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만일 현재 개체의 물리적 상태가 동일하다면 심적 내용이 동일한가?”라는 질문이다. 인과적 영향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니요”라고 대답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자라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용 내재주의자는 내용에 대한 외적 역사적 영향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원인들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가 다르더라도 현재 상태는 동일할 수 있다. 즉, 비록 현재 상태는 분명 과거가 어떠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현재 상태가 다른 과거를 원인으로 가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만일 현재 상태가 동일하다면 심적 내용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반면 외재주의자는 위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즉 비록 현재 개체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해도 유관한 과거가 다를 경우에 심적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험과 의식에 대한 체화된 인지주의자들은 “만일 현재 두뇌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경험은 동일한가?”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는 두뇌중심주의를 상대해야 한다. 두뇌중심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두뇌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인과적으로 의존함을 보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뇌중심주의도 인과적 의존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자라난 고양이와 활발히 움직이며 자라난 고양이와 달리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의 몸과 운동능력이 감각경험의 형이상학적 수반 기저에 포함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노에는 분명히 지각과 행동의 관계는 단지 인과를 넘어서서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예를 들어, 카메라의 몸통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 카메라에 맺히는 상에 인과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카메라 몸통의 움직임은 카메라에 맺히는 상을 위한 준비단계 일뿐 카메라의 상 자체는 아니라는 선입관을 노에는 비판한다. 그러한 선입관은 헐리가 “도구적 의존(instrumental dependence)”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7)</sup> 도구적 의존에 따르면 행동이 눈에 입력되는 빛의 패턴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경험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즉 행동이 경험의 차이를 가져오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 본질적 성격에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 행동은 시각 기저에 입력되는 자극의 패턴에 영향을 줌으로서만 시각 경험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다.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마비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한 상태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앞의 물체들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실제로 안구가 움직이는 않았음으로 눈에 입력되는 자극의 패턴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물체가 움직이는 경험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이에 대한 한 설명은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가 두뇌 내부에서 시각 체계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가 안구를 움직이고 이것이 눈에 입력되는 자극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시각 경험이 변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행동이 경험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자극의 변화를 매개할 필요는 없다. 행동과 경험의 생성은 보다 다층적인 인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이 반드시 외적 자극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경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노에의 이론을 이해하였을 때 노에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각이 항상 사고와 같은 보다 중심적 심적 상태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 영향을

6) “The central claim of what I call the enactive approach is that our ability to perceive not only depends on, but is constituted by, our possession of this sort of sensorimotor knowledge.” p. 2.

7) Susan Hurley, 1998, p. 10.

주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지각은 행동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 등 내적 상태를 촉발한다. 통상 지각이 사고를 촉발하고 그 사고가 행동의 원인이 된다. 친구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흔들었다 친구를 본 경우 아마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판단했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지각은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때로는 중심 인지과정을 통하지 않고 지각이 직접적으로 행동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 지각과 행동의 인과적 연결이 항상 간접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노에의 입장을 이해할 때도 노에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에가 형이상학적 의존을 주장한다면 과연 그가 실제로 제시하는 근거가 과연 그것을 지지해 주는가 몇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두뇌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반짝이는 불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노에는 비록 일부 경험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해서 “추가적 논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모든 경험들을 두뇌에 대한 직접적 자극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또는 그것이 원칙상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다”(211) 경험에 대한 내재주의자는 물론 두뇌의 상태가 동일하면 동일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재주의자가 통상 외부로 부터의 자극에 의해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험이 직접적 자극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순박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현재 두뇌 상태와 동일한 두뇌 상태를 직접 자극에 의해 만드는 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재주의자들의 주장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즉, 만일 현재 두뇌 상태와 동일한 두뇌 상태가 직접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면 경험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노에는 경험에 대한 내재주의를 현재와 동일한 두뇌 상태를 외부로 부터의 입력 없이도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두뇌의 직접적 자극에 의해 경험들이 인과적으로 생성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두뇌의 적절한 상태가 생성되면 관련된 경험이 예화 되는가이다.

둘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의 앞부분이 올라가는 것 같은 착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에는 중력에 상대적으로 몸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으로 부

터의 입력이 시각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26)</sup> 따라서 시각 경험은 단지 빛과 관련된 입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상대적인 몸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도 시각 경험의 몸 의존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시각 경험에 대한 두뇌 중심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몸이 시각 경험을 생성하는 데 있어 인과적인 필요조건임을 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노에는 자동차의 운동(a car's running)을 비유로 들면서 비록 자동차의 운동이 엔진에 의해 조절된다고 해서 자동차의 운동이 엔진에 수반하지는 않듯이 경험이 두뇌의 활동에 의해 조절된다고 해서 두뇌가 경험의 수반기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sup>(211)</sup> 이 또한 부적절한 비판이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선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해 있고, 지면과의 마찰력이 제로이지는 않고 강력한 맞바람이 항상 불지는 않고, 등의 여러 통상적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경험에 대한 내재주의자는 경험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선 당연히 두뇌 몸의 상태 그리고 빛의 변화 등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몸과 빛에 수반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넷째, 노에는 내재주의의 한 동기로서 꿈을 언급한다<sup>(213)</sup>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즉 몸의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꿈의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경험의 수반 기저는 두뇌라는, 의식은 두뇌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비판하면서 노에는 과연 꿈이 몸의 활동과 동반되는 일상적 경험과 “질적으로(qualitatively)” 동일한지를 묻는다. 노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 꿈의 경험은 그 상세함과 안정성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꿈이 일상적 경험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보자.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에 대한 노에의 추측에 따르면 꿈은 온전히 두뇌의 상태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나 반면 일상적 경험은 두뇌 뿐 아니라 몸의 활동 그리고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험에 대한 내재주의자는 두뇌의 차이 없는 경험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따라서 꿈과 일상적 경험의 질적인 차이는 두뇌의 어떤 차이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것이다.

노에가 언급하는 사례들이 과연 형이상학적 의존을 뒷받침해주는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에의 주장이 틀렸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체화된 인지가 틀렸다는 증거는 있는가? 실제 경험적 성과들은 체화된 인지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블록은 두 가지 지각 체계를 소개한다.<sup>8)</sup>

**배쪽 체계 (the ventral system):**

- 두뇌의 후면에서 출발하여 아래와 옆쪽으로 펼쳐져 있음
- 의식 경험의 생성을 조절
- 동작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뒷받침
- 대상에 대한 자기-중심적 표상보다는 객관적 표상을 사용
-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중심와(fovea)로 부터의 신호처리에 중점

**등쪽 체계 (the dorsal system):**

- 두뇌의 뒤쪽에서 두뇌 위로 펼쳐져 있음
- 의식과의 연결이 불투명
- 빠른 처리 과정
- 거리와 방향에 대한 자기-중심적 표상을 사용
- 기억이나 색깔지각이 부재
- 실시간적 행동 조절에 관여
- 시계(visual field)의 주변부에 관한 자극에 반응

이러한 두 가지 체계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시각에 관한 여러 능력들이 차별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optic ataxia라는 증상은 시각을 통한 행동 조절이 손상되는 경우이다. 시각과 행동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손을 사용해서 어떤 방향을 지시한다던지 물건을 집는다던지, 어떤 방향을 향해 팔을 뻗는다던지 등의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고를 할 수 있다 역으로 행동 조절 능력은 그대로이나 판단능력이 상실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

8) Ned Block, 2005.

체계를 상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둔 반론은 노예의 이론이 경험에 대한 제한된 분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예가 강조하는 행동조절은 등쪽 체계에 특수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배쪽 체계에 의한 경험의 측면들은 결국 행동 조절과 무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예는 자신이 감각운동지식이 지각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주장할 뿐이라고 대응한다.<sup>9)</sup> 자신이 부정하는 것은 감각운동지식이 지각 능력의 한 요소도 아닌, 완전히 행동과 단절된 그러한 지각이다. 감각운동지식이 지각 능력의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음으로 따라서 시각 체계 중 일부가 행동 조절과 무관하다는 것이 자신의 이론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각운동지식이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지각 능력의 측면은 무엇인가 노예의 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블록도 그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인정하는 듯하다.

... 나는 행화이론에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지각 경험은 사실 감각운동 능력에(인과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의 “부재하는 현존”의 직관은 공간-운동적 인상 때문일 수도 있다.

블록 자신은 현상적 의식과 인지적 의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에 환원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은 감각운동지식이 경험의 현상적 성질의 형이상학적 기반이 되지는 않지만 경험이 어떻게 세계를 표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는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 블록이 “부재하는 현존”에 대하여는 행화이론이 유력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그가 의도하는 것은 부재하는 현존이 경험의 표상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된 블록의 주장을 과연 노예가 수긍할 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노예가 감각운동지식이 지각 경험의 전부는 아니고 그것을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반드시 감각운동지식이 경험의 현상적 성질과 구분되는 바로서의 인지적 의식에 국한됨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상적 의

9) “the perceiver’s ability to perceive is constituted (in part) by sensorimotor knowledge...”. p. 12.

식과 인지적 의식의 확연한 구분은 그 자체가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과 독립적으로 블록의 인용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부재하는 현존”이 반드시 인지적 의식에 국한된 것은 아니더라도 경험의 한 중요한 측면이며 최소한 이에 대해 행화이론은 유효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를 평가하는 것이 다음 장의 주제이다.

### 지각의 대상

노에의 행화주의 이론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의도된 한 문제는 노에가 “지각적 현존의 문제 (the problem of perceptual presence)”라고 부르는 문제이다. 몇 가지 사례들을 보자.

(i) 당신이 만일 친구와 마주보며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자 아마 당신은 그 친구의 얼굴표정과 그가 하는 말에 주목을 할 것이다 주변의 소음이나 그 친구가 앉아 있는 자리의 배경에 놓여져 있는 물체들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소음을 듣고 뒤 배경을 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는 사실이 소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물론 그 많은 소음과 여러 배경에 다 주목할 수는 없다. 아마 그랬다면 당신은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주목(attention)은 선택과 집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목하지 않는 세계의 여러 측면들도 경험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 선명하게 보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시계(visual field)는 그 보다는 훨씬 넓다고 생각한다. 시계의 주변부도 어떤 의미에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에는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59)

(ii) 다른 사례는 당신이 지금 사과 하나를 보고 있다고 해보자 엄밀하게 말해서 당신이 보는 것은 그 사과의 앞면이다 사과의 뒷면과 속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삼차원적 부피를 가진 대상으로 사과 자체가 당신의 의식에 드러나는 것 같기



도 하다.

(iii) 노에가 언급하는 또 다른 사례는 울타리에 가려진 고양이를 보는 경우이다. 엄밀하게 말해 비록 당신이 울타리에 가려지지 않은 고양이의 부분들만 볼 수 있지만, 당신은 고양이 전체가 현존하는 경험 (a sense of the presence of a cat)을 한다.(60)

위와 같이 엄밀히 말하면 보여 지지 않는 부분도 경험에 현존할 수 있음을 노에는 “부재하는 현존(present as absent)”, 또는 “가상의 내용(virtual content)”이라고도 부른다.(61) 노에는 자신이 주목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심리학자들이 비양상적 지각 (amodal percep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비양상적 지각의 한 사례는 카니자 삼각형이다. 세 개의 팩맨 또는 계의 집게발이 놓여진 도형을 볼 때 중앙에 삼각형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따라서 뒤에 있는 삼각형은 위의 삼각형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아래의 삼각형의 가려진 부분들은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감각에 현존하기는 한다.

노에의 주장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고양이의 가려진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려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노에는 이것이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 아니라 가려진 부분들도 어떤 의미로 경험에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 즉, 보이지 않지만 또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노에는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도 외적 세계 자체가 실제로 보여 지지 않지만 외적 세계 자체가 감각에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말해 보여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추론하여 마음속에서 구성한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하나? 노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노에는 부재하는 현존도 경험의 한 측면이라고 본다. 외적 대상들 자체가 경험의 내용 안에 현존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노에 자신이 심각히 받아들이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후 노에는 행화이론이 그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과 그 자체가 우리의 경험에 현존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사과를 돌려 본다면 사과의 뒷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각운동지식을 통해 현재 사과를 보기 때문에 비록 엄밀하게 말해 사과의 전면만 현존

하지만 나의 경험의 내용은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과의 뒷면은 내적으로 표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뒷면은 시각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주어져 있다(perceptual presence). 왜? 노에의 대답에 따르면 우리가 적절히 움직일 경우 사과의 뒷면을 인지할 수(access) 있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으로 현존한다. 즉, 몸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인지 때문에 사과의 뒷면이 현존하고 따라서 외적 대상에 대한 지각은 몸에 의존한다.<sup>10)</sup> 만일 노에의 설명이 적절하다면 이는 체화된 인지를 뒷받침해주는 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노에의 이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을 고찰해 보자 한 가지 반론은 문제의식 자체에 향해져 있다 노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표면들만이 현상된다고 말하는데 왜 “엄밀하게 말해서” 대상 자체가 지각될 수 없는가? 물론 내 앞의 컵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뒤 표면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앞의 컵을 보고 있을 때 컵 자체가 내게 현존하지 않는가? 컵 자체의 현존이 설명이 필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노에의 이론은 감각소여이론(sense-datum theory)과 유사한 점이 있다. 감각소여이론에 따르면 직접 지각의 대상은 감각소여라는 심적 대상에 국한된다. 감각소여이론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외적 대상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설명하는 가에 있다 여기서 만일 외적 대상은 감각소여에 기반을 두고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외적 대상은 경험의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노에는 감각소여이론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것에 대한 지각이 외적 대상에 대한 지각을 매개하는 그러한 특별한 대상은 없다. 노에는 어떤 의미에서 외적 대상도 우리의 경험에 주어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에는 외적 대상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노에가 말하는 대로 감각소여가 어떤 우선성을 가진다는 것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왜 외적 대상이 직접 지각의 대

10) 부재하는 현존의 문제를 지각 이론의 중심 문제로 이해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화이론을 제시하는 노에의 입장은 *Action in Perception*에서 개진되었고, 이 논문에서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만일 추후에 노에의 입장이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이 논문에서 제시된 비판은 그 책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출판된 저술에서도 노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노에는 행동을 통한 접근가능성을 부재하는 현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2012에 출판된 *Varieties of Presence*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p. 19.

상이 될 수 없는가? 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즉, 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 대상의 표면들을 보며 또한 엄밀하게 말해 대상 그 자체를 본다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가?

비록 고양이 전체를 보고 있고 고양이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감각적으로 현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고양이의 모든 부분이 현재 나에게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62)

자기모순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와 같은 지적은 노에의 저술에 자주 등장한다. 도대체 노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고양이의 모든 부분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왜 고양이 자체가 감각적으로 현존하는가? 노에에 따르면 그 이유는 내가 움직일 경우 고양이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노에는 고양이의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고양이 자체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가정 자체가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sup>11)</sup> 우리는 일상적으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친구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본다. 그들의 옷과 신발은 친구들의 부분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 우리는 그들의 옷과 신발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친구들을 보지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친구들 자체를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한편, 고양이의 외면을 다 본다고 해도 고양이의 심장이나 허파 등은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고양이의 심장이나 허파 등을 보기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양이 자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인가?

부재하는 현존에 대한 노에의 해결책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다음과 같다. 사과 뒷면은 내가 만일 사과를 돌려 본다면 볼 수 있다. 또는 사과를 누가 돌린다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노에에 따르면 현재 나의 경험에 사과 뒷면이 현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켈리는 노에의 이러한 설명이 가지는 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sup>12)</sup> 만일 사과 뒷면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사과를 돌려 볼 때에야 비로소 존재한다고 해도 노에의 설명은 만족된다. 왜냐하면 돌려 볼 때 존재하기 시작했

11) M.G.F. Martin, 2008, p. 677.

12) Sean Kelly, 2008, p. 684.

다고 해도 그 때 우리는 사과의 뒷면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켈리는 이러한 설명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현상적 내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를 볼 때 지금 그 사과가 뒷면이 있는 삼차원적 물체로 경험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동작에 따라 드러나는 이차원적 표면들의 연속이 삼차원적 부피를 가지는 대상의 현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켈리의 사과(켈사과)는 분명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일상적인 사과는 아니다 켈사과는 우리의 지각에 의존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사과는 노에의 감각운동지식을 만족한다. 그렇다면 일상적 사과에 대한 지각을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고 결국 외적 세계 자체를 경험에 현존하는 것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던 노에의 시도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노에의 이론은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노에의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추정해 보기로 하자

켈리에 따르면 노에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이중 내용의 문제(the problem of dual content)를 안고 있다. 노에는 대상 자체가 현존할 때에 동시에 그것의 현상적 측면도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전을 보고 있을 때 그 동전의 둥근 성질도 의식 경험에 현존하지만 동시에 그 동전이 타원형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켈리는 우리가 기울어진 동전을 볼 때 그 동전의 둥근 성질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타원형처럼 보이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켈리는 단지 그 두 성질을 동시에 경험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애매한 오라토끼 그림을 볼 때 그것을 오리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토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리와 토끼로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반면 노에는 그 두 성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대답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쉽지는 않다. 각자 자신의 경험의 내용에 대해 내성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가? 이중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켈리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으며 나름 현상에 대한 기술에 있어 누가 옳은지에 대한 객관적 또는 실험적 자료를 찾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켈리가 애당초 이중 내용을 부정하고자 하는 동기는 이중 내용의 다음과 같은 함축 때문인 것 같다. 만일 노에의 주장대로 동전을 보는 경험이 그것을 둥글게 그리고 타원형으로 동시에 표상한다고 해보자 이러한 경우 경험은 모순적 내용을 가지게 된다. 과연 한 경험이 어떻게 그 동전을 둥글

게 표상하고 또한 동시에 타원형으로 표상할 수 있는가? 즉, 노예의 입장은 일상적인 경험이 동일한 동전을 동시에 둥글게 그리고 타원형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모순된 내용의 문제에 귀결된다

켈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표상주의 이론 일반의 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밀러-라이어 착시 그림을 볼 때 두선의 길이는 실제로 동일하나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는 착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표상주의자는 경험이 그 두선의 길이가 다르다고 표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험은 그 두선의 길이를 잘못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그 두선의 끝 점들은 그 점들이 실제로 있는 곳에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끝 점들은 그들이 실제로 있는 곳에 있다고 표상된다. 모서리의 위치는 착시가 아니다. 그런데 끝 점들이 실제로 있는 곳에 있다고 표상한다면 두 선의 길이는 같다. 그렇다면 밀러-라이어를 보는 경험은 두선의 길이가 같다고 표상하고 동시에 두선의 길이를 다르게 표상하기도 한다. 브루어는 이를 “불가능한 내용 (impossible content)”의 문제라고 부르고 표상주의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sup>13)</sup>

켈리는 노예를 비판함에서 있어 노예가 넓게 보아 표상주의적 입장을 택한다고 가정하는 것 같다. 이중 내용이 결국 불가능한 내용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노예가 표상주의적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켈리의 비판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노예가 표상주의를 가정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노예는 외적 대상 자체가 엄밀한 의미로 경험에 현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카니자의 가려진 삼각형의 부분들은 엄밀하게 말해 보여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피를 가진 삼차원적 사과 자체가 보여 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노예는 사과 자체가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한다고 주장한다. 그 “어떤 방식”이 반드시 경험이 사과를 삼차원적 대상으로 표상한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외적 대상이 의식에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 저리하게 표상된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외적 대상이 경험에 현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여기서 노예는 감각 운동지식에 호소하여 그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그러나 노예를 표상주의적 가정으로 부터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해도 다

---

13) Bill Brewer, 2007, p. 90.

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동전을 어떤 각도에서 볼 때 동전이 타원형으로 보인다. 노에는 그 동전의 현상적 성질 - 타원형으로 보임 - 도 그 동전의 한 성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성질 (노에가 “perspectival property”라고 부르는)은 그 동전이 관찰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게 되는 관계적 성질이다 관찰 주체의 감각이나 심적인 상태에 상대적이라기보다 관찰자의 몸에 상대적이다 보는 각도와 위치에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동전의 관계적 성질이다 노에는 관계적 성질이 실재하며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관계적 성질은 그 자체 지각의 대상이다(83) 그러나 동전이 타원형으로 보일 때 과연 그 타원형이 실제로 타원형인 물체를 정면에서 볼 때와 다른 성질인가? 실제로 타원형인 물체를 정면에서 볼 때는 그 대상 자체의 비관계적성질을 직접 지각하는가? 그러나 실제로 타원형인 물체를 볼 때에도 그 타원형은 그 대상을 보는 각도와 위치에 상대적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타원형으로 보이는 둥근 동전과 실제로 타원형인 물체의 구분은 어디서 오는가

감각소여이론가들은 동전이 타원형으로 보일 때 타원형인 대상은 동전이 아니라 감각소여라고 간주할 것이다. 분명 타원형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동전은 타원형이 아님으로 따라서 동전과 다른 대상인 감각소여의 실재를 주장한다 반면, 표상주의자는 감각소여와 같은 존재자를 상징하는 대신 경험이 동전을 타원형이라고 (잘못) 표상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노에는 표상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감각소여를 배제하지만 표상주의적 해결책을 수용하는 대신 동전의 관계적 성질을 직접 지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도 바로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봉착한다 즉, 타원형으로 보일 뿐인 동전과 실제로 타원형인 대상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노에의 이론이 봉착하는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현존에 대한 어떤 가정으로부터 초래되는 것 같다. 대상과 성질이 경험에 현존(presence)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러셀이 직접 대면(acquaintance)라고 불렀던 경험과 대상의 특이한 이 관계의 본성은 무엇인가? 러셀은 현존이 인식을 함축하는 것으로 즉 지각적 현존이 세계에 대한 지식, 그것도 아주 특별한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았다. 과연 그런 가정이 정당한가? 물론 노에는 지각적 현존이 감각소여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에 또한 지각적 현존에 인식적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이 타원형처럼 보

일 때 그 경험을 동전의 어떤 성질에 대한 지각으로 보는 것이다 현존이 인식을 함축한다는 가정은 공유하되, 단지 인식되는 내용을 감각소여가 아니라 외적 대상의 관계적 성질로 교체한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우리의 경험에 현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타원형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은 실제로 타원형인 대상이 현존할 가능성과, 실제로 둥근 동전이 현존할 가능성, 또는 우리가 환각을 할 가능성, 등과 양립가능하다. 한 경험은 세계의 여러 가능성과 양립가능하며 따라서 특정한 사태를 결정하지 않는다. 경험 자체가 특정한 세계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현존이 인식을 함축한다고 볼 경우, 현존의 대상은 우리의 존재론적 입장에 의해 제약되게 된다. 그러나 현존과 인식을 구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타원형인 물체를 볼 때 타원형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은 그 물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타원형으로 보이는 둥근 동전을 볼 때 타원형을 보는 것 같은 현상적 성질은 둥근 동전 자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타원형인 감각소여에 의해 결정된다. 즉, 둥근 동전의 관계적 성질을 도입하는 대신 타원형인 감각소여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감각소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감각소여라는 대상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그러한 대상이 현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존과 인식을 구분한다면, 현존이 세계의 궁극적인 실재를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존의 내용을 분석하는 입장은 가능해진다

이러한 분석을 택할 경우 위에서 제기되었던 반론- 엄밀히 말해서 고양이 자체가 경험에 현존될 수 있다는 - 도 피해갈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 있다면 경험의 현상적 성질은 고양이 자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엄밀히 말해도 고양이 자체가 현존할 수 있다. 울타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고양이를 볼 때에도 고양이 자체가 현존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양이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자체를 현존하기 위해 고양이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볼 필요가 없다. 물론 내가 가진 현재 경험 또는 현재 경험과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은 다른 가능성들과 양립가능 하기는 하다. 왜냐하면 실제 고양이를 보는 나의 경험은 고양이를 환각하는 가능성 또는 켈리가 언급하는 종류의 고양

이(켈고양이)를 보는 가능성, 등과 양립가능하다. 즉, 나의 경험은 고양이와 그 성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존 자체가 고양이 자체에 대한 즉각적이고 특별한 인식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자체가 현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에가 왜 “엄밀하게 말해서 고양이 자체가 경험에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양이 자체가 현존하더라도 그것이 고양이의 존재를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에의 외적 대상의 현존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노에가 강조하는 행동과의 연결 감각운동지식의 중요성과 의미는 노에가 생각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지도 모른다 고양이 자체가 엄밀하게 말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즉 고양이 자체가 어떻게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감각운동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몸과 행동은 지각에 왜 중요한가? 위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외적 대상이 우리의 경험에 현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 외적 대상의 존재와 성질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외적 대상의 존재와 성질에 대한 인식이 있기 위해서 어떠한 추가적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나 내가 경험을 통해 “고양이가 울타리 뒤에 있다”를 알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무엇이며 고양이는 울타리에 가려질 수 있으며, 내가 인과적으로 외적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통속의 뇌는 아니라는 믿음 등등이 정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풍부한 인식적 배경 조건들이 성립할 때 나의 경험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외적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통속의 뇌가 아니라는 말은 내가 구체적인 환경에 몸담고 있으며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적응되어 있는 개체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외적 대상과 우리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전통적으로 인과이론을 옹호하던 철학자들이 주목하는 대상으로부터 주체로 가는 한 방향만이 아닐 수 있다. 행화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주체로부터 세계로 가는 인과적 흐름도 중요할 수 있다 또는 주체로부터 세계로 가는 인과적 흐름이 대상으로부터 주체로 가는 인과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각운동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몸의 존재는 인식적 배경 조건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경험이 일상적 지각 판단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성립해야 하는 조건들 중 하나이다.

위에서 노에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노에의 핵심 주장들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과연 노에가 이러한 진단과 해석을 수용할 지 이러한 진단과 해석이 노에 이론의 다른 측면들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 지 대안적 지각이론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지 등 추가적인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 참고문헌

- Adams, F., and Aizawa, K., (2001) "The bounds of cognition", *Philosophical Psychology* 14, no. 1: 43-64.
- Block, N., (2005) "Review of Alva Noë's *Action in Percep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102(5): 259-272.
- Brewer, B., (2007) "Perception and its objects", *Philosophical Studies*, 132:87-97.
- Clark, A., (2008) "Pressing the Flesh: A Tension in the Study of the Embodied, Embedded Min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XVI No. 1.
- Dempsey, L., and Shani, I., (2012) "Stressing the Flesh: In Defense of Strong Embodied Cogni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ume 86, issue 3, pages 590-617.
- Hurley, S., (1998) *Consciousness in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Kelly, S., (2008) "Content and Constancy: phenomenology, psychology, and the content of percep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XVI No. 3.
- Martin, M. G. F., (2008) "Commentary on Action in Percep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XVI No. 3.
- Noe, A., (2004) *Action in Perception*, The MIT Press.
- Noe, A., (2012) *Varieties of Pres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차원고접수 : 2014. 08. 15  
1차심사완료 : 2014. 09. 05  
최종게재확정 : 2014. 09. 17

*(Abstract)*

## Perception and Body: with a focus on Noe's theory

Bosuk Yo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critical review of Alva Noe's enactive theory of perception. The discussion will be organized around the three issues:

- (i) Does the body make an ineliminable contribution to shaping the mind?
- (ii) Does Noe succeed in providing effective arguments against the brain-centrism?
- (iii) Does Noe's theory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how we can perceive external objects?

In the sections 2 and 3 of the paper, I discuss possible criticisms that can be raised against Noe with regard to (i) and (ii). Although these are serious criticisms, they apply to the embodied cognition in general. That is, those criticisms are not restricted to Noe's theo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re aspect of Noe's theory,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of perceptual presence" that is brought up in (iii). It is here that Noe's theory is supposed to make a distinct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perception. I argue, however, in the section 4 that Noe's theory fails to provide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perceptual presence.

*Key words : embodied cognition, Alva Noe, enactive theory, perception, presence*